

봉축특집 불기 2552년



김우남 경남 하동 출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 졸업. 2001년 <실천문학> 신인상 수상. 2006년 첫 소설집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 (실천문학사) 출간. 2006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됨, 현재 계간 <문학나무> 상임 기획위원.

나는 부처님을 뻔히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원망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의 결과인가요? 그동안 내가 받은 육체적 고통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내 업장이 모두 소멸될까요?'

대형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생경한 내 몸뚱어리가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겨드랑이에서부터 기다랗게 생겨난 절개선이며 광목천을 묶은 바늘로 훑질한 것 같은 수술 자국... 찢어진 칼레를 누룩누룩 기운 것 같은 그건, 몇 십 년을 같이한 내 몸이 아니었다. 한 쪽만 털링거리는 유방은 더욱 불쌍사나웠다. 눈물이 왈락 쏟아졌다. 얼굴을 타고 줄줄 흐르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보살님, 꿀물 좀 타왔어요. 어찌나 절을 열심히 하시는지 부르기가 민망할 지경이네요. 큰 수술 하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무리하심 안 되죠. 시냇가에서 그만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삼천 배도 아닌데... 절하는 게 몸에 좋은 운동이라잖아요.'

일어서며 합장을 하는데 온몸이 휘청거렸다. 나는 얼른 바닥에 놓인 엽주를 집을 시늉을 했다.

'잠, 아까 맥에서 사장님이 전화 주셨어요. 잘 도착하셨나구 물으시더군요. 꼭 쉬고 천천히 오시라고 하대유.'

'나 때문에 일찍 잠도 못 주무시고... 곧 내려갈게요. 먼저 주무세요.'

'그러유, 저 옆에 보살님 이부자리 퍼왔으니까 바투 내려오세요.'

나는 공양주보살이 갖다 준 꿀물을 마시고 아픈 어깨를 주물렀다. 갑자기 등이 결렸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등줄기가 당기고 아팠다. 유방암이 재발할 때는 등이 결리고 아프다고 했잖나. 그렇다면 정말 암세포가 또다시 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건가. 조직검사 결과는 모레 아침에 나온다고 했다. 무서웠다. 온몸에 오스스 소름이 들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를 살려 주세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을 소리 내어 불렀다. 내가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 가득 찼다. 관세음 주먹을 하며 미친 듯이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문득 안정신이 서럽게 울며 기도하던 소리가 환청처럼 되살아났다. 새벽녘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다가 세탁실에서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천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십니까? 모든 걸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여기서 천주님 가르침대로 따르고 있지만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해야 하나요? 천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울음과 한탄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천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더니 그게 아니었던 말인가. 우리들

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신은 아무 데도 없단 말인가. 그날의 우울했던 기억을 잊고 싶었다. 한참 동안 머리를 바닥에 대고 태아처럼 웅크렸다. 앉은자리가 오줌을 싼 것처럼 흠뻑 젖었다. 땀을 흘리고 닦더니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졌다. 졸지 마. 잠선 중에 조는 수행승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죽비소리 같은, 안정신이 내치르는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정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했지만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마리아 성상만 눈앞에 멩그머니 나타났다. 아기를 안고 있던 마리아님, 사랑으로 충만한 마리아님, 그렇게 나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한 여인 하나 구원해 주지 못한 마리아님,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여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야 했나요? 그녀가 얼마나 더 회생했어야 할까요? 나는 그녀의 천주님이 자주 원망스러웠다.

세 시간 이상 지난 것 같았다. 다리가 뻣뻣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온갖 잡념들이 머리

얍전한 수연 스님이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주저리주저리 부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

'밤새 천 배를 해도 마음이 조금도 편하지 않아요. 친정엄마 따라서 일찍부터 절에 다녔는데 부처님 가피는 못 받음당장...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업장이 소멸되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하나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기도만 하시는 스님들은 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수연 스님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결심을 한 듯 굳은 표정을 한 채 입을 열었다.

'보살님,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실래요?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 나는 눈만 깜빡였다.'

'보살님만 고통을 가지신 게 아니랍니다. 저도 전생과 이생에 지은 죄를 업장소멸하려고 매일 아침 백팔 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혼모였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때가 되면 지기 때문 아닐까.

그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림 · 김홍인

속을 헤집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는 엉금엉금 기다시피해서 공양주보살 방으로 내려왔다. 방바닥이 따끈해서 좋았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육신거렸다. 공양주보살은 단잠을 자는데 나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큰 절의 사천왕문을 지날 때 뿐 무시무시한 형상을 꿈속에서 내가 다 겪어야 했다. 허가 뻘히고, 머리가 잘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하는 고통에 나는 내내 몸부림을 쳤다. 차라리 죽고 싶었는데 죽음마저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되살아나고 되살아나서 그 많은 고통을 되풀이해서 겪어야 했다. 겨우 잠이 든 것은 행자스님의 도량씩 돌며 외는 엽불 소리를 들은 후였다.

아침공양을 뜨는 중 마는 중 하는데 수연 스님이 나를 불렀다. 자기 방에서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다.

'보살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고생 많으셨지요? 몇 번이나 그만 두시라고 하려다가... 보살님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싶어서...'

갑자기 눈물이 왈락 쏟아졌다. 쉽게 눈물을 보이는 것도 수술 이후에 생긴 버릇이었다.

'스님,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남들은 비껴가는 일인데 저에게만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주변사람들이 원망스럽기만 해요. 말쑥한 그들을 괜히 물어뜯고 할거고 싶어요.'

답니다. 어린 나이였지요. 아무것도 몰랐지요.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깨어나 보니... 이미 아기는 누군가에게 보내지고 없더군요.'

그렇잖아도 수연 스님을 보면 내 포레밖에 안 되었을 텐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찢어질 나이에도 비구니가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슴속 얘기를 왜 나에게 들려주는지 그것이 더 궁금했다.

'한동안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요. 죽음만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노스님을 뵈게 되었지요. 노스님께서 저에게 고타미라는 이름을 가진 과부 얘기를 들려주셨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아 보살님도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사위성에 살던 고타미라는 과부 얘가지요. 애지중지 키우던 외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쓴 과부 말입니다. 부처님은 과부에게 '삼 대 동안 상여가 나가지 않은 집에서 여자씨를 구해 오라. 그러면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당연히 삼 대 동안 상여가 나가지 않은 집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나는 여전히 과부 얘기가 어떻게 수연 스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처한 현실과는 무관한, 아주 먼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노스님께서 저의 마음 밑바닥을 읽으셨던 거지요. 고통의 원인이 먼 데 있지 않고 나의 집착과 욕

망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스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저희를 등 만들러 왔어요.'

'어서들 오세요. 일찍부터 복 지으러 오셨네요. 아침 공양은 하셨나요?'

'그럼요, 그렇지만 점심은 맛있는 절밥으로 주실 거죠?'

여자들은 소녀처럼 밝게 재잘거렸다. 여자들이 등 만드는 방으로 올라간 후였다. 나는 등 만들 재료를 챙기고 있는 수연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저 등등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달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등을 만들며 그 사람을 위해 행복이나 극락왕생을 빌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기원은 없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지요.'

수연 스님을 도와 몇 가지 물건을 들고 외인 출입 금지 팻말이 달려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마루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꽃잎과 꾸어놓은 풀, 철사 모형 위에 초벌 창호지를 입혀 놓은 별거벗은 등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여자들은 익숙하게 종이에게 풀을 바르고 꽃잎을 하나하나 붙여 나갔다. 금세 한 개의 고운 연등이 태어나고 있었다. 서로 누가 만든 등이 더 예쁘다, 잘 만들었다, 하며 품평을 하기도 했다. 나는 수연 스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줄을 맞춰 진분홍 빛 꽃잎을 붙이고 초목 꽃받침을 달았다.

밤새 절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등을 만들다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약수를 떠 마시고 잠시 마당가를 걸었다. 커다란 동백나무 아래 붉은 동백꽃이 송이처럼 뚝뚝 떨어져 있었다.

'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고 있구나. 이 꽃들이 지지 않아도 아름다울까.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때가 되면 지기 때문 아닐까. 그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동백나무를 향해 공손하게 합장을 했다. 3층에 올라가 연등을 몇 개 더 만들었다. 그리고 두 개의 등을 따로 만들었다. 분홍 연등에는 우리 가족 이름을 써넣었고, 하얀 연꽃등에는 안정신이라고 썼다.

'정신씨, 천주님 품안에서 편안하길 빌게요. 우리 나중에도 또 만나요.'

참으로 묘했다. 죽음이 나 혼자만 겪는 불행이 아니라 사실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함께 덮는 숨이 불처럼 버너한 위안이 되고 있었다.

길을 내려가는데 미리 내다 간 팔각등이 절 마당에서부터 한길까지 줄을 짓고 있었다. 모양 좋은 오색 등이 걸려 있는 길은 그리 삭막해 보이지 않았다.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뽕잎이 바람에 실려 하나 둘 날아왔다. 팔각등, 연등, 영가등이 커다란 꽃송이가 되어 너털너털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부처님 오신 날'이 앞으로 보름 후였다. <끝>

Advertisement for Gyeongang University (금강대학교)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campus and text about global business talent training. Includes VISION 1 (인성/덕성 함양), VISION 2 (외국어(영·중·일) 교육 특화), and VISION 3 (행정실습 교육 강화). Contact info: 031-986-0277.

Advertisement for Bulje Lighting (불제대원기업) featuring images of candles and LED lights. Text: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불제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범당) 전기초. 불제대원기업. Contact info: 031-986-0277.